

Not Rated

라온시큐어 (042510)

컨설팅부터 솔루션까지 가능한 보안 강자

황세환

admin@fsresearch.net

현재 주가 (11/6)	2,285원
시가총액	876억원
발행주식수	38,667천주
52 주 최고가/ 최저가	2,825 / 2,045원
60 일 일평균 거래량	592,739주
외국인 지분율	2.1%

주주 구성

이순형 (외 6인)	19.4%
------------	-------

주요 자회사

DIGITAL TRUST NETWORKS	100.0%
------------------------	--------

전환가능 주식수 (CB, BW 등)

6,482,982 주	21.12.20~24.12.20
-------------	-------------------

주요 재무 & 지표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 (억원)	372	434	468	510
영업이익 (억원)	-35	-10	43	12
영업이익률 (%)	-9.5	-2.3	9.2	2.4
순이익 (억원)	-101	-66	67	40
PER (배)	N/A	N/A	12.2	21.9
PBR (배)	4.2	5.0	2.2	1.8

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23 PBR의 BPS는 23년 2분기 기준

- 모바일, PC용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
- 2018년 2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4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
-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

기업개요 :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강자

동사는 1998년 설립된 모바일, PC용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체이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솔루션 사업과 서비스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솔루션 부문이 매출의 7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 사업은 매출비중이 44.1%이다. 내부거래 등으로 차감되는 비중은 -18.9%이다. 보안솔루션은 다시 모바일보안, PC보안, 통합접근관리, 인증통합관리 등으로 나뉜다. 먼저 45%의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보안 사업을 살펴보면 모바일 환경에서 키보드 보안, 백신 등 기본적인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고 FIDO(Fast Identity Online) 표준에 기반한 생체인증 기능을 금융기관 등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증 솔루션은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으면서 차세대 인증 기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솔루션 사업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큰 PC보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한 키보드 보안과 웹보안, 백신, 방화벽 등을 공급하고 있다. 통합접근관리 솔루션은 회사에서 사용자별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 영역을 구분하고 사용자가 로그인시 실시간으로 세션을 관리하고 관리자 행위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부문에는 스마트폰 USIM에 공동인증서를 발급 및 저장하는 서비스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도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또한 화이트햇 보안 컨설팅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객사에 임의로 모의 해킹을 한 후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사의 솔루션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서비스 사업부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지털 증명서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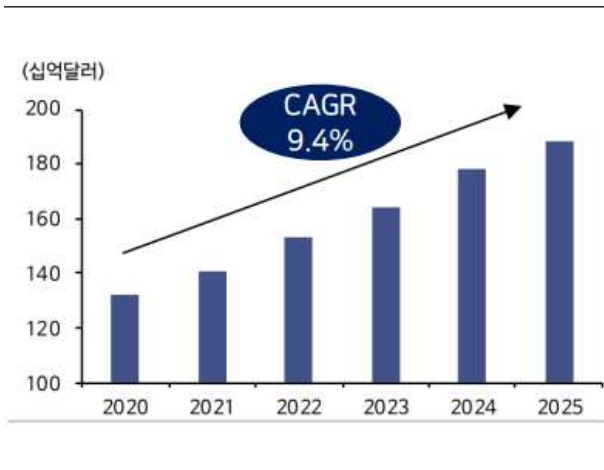
FS리서치
공식 텔레그램 채널 QR코드
www.fsresearch.co.kr

국내수요 꾸준, 해외 진출로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동사의 과거 실적만 보더라도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국내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018년 2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4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4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이 모바일 비중이 급격히 커진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도 모바일의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 솔루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신규 보안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사는 해외에서의 성과도 기대된다. 구독형 생체인증 서비스가 일본에서 월 이용자 36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디지털ID 도입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미국 법인에서는 북미 최대 의료 체인인 C사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인증 플랫폼을 공급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쌓았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추가 수주가 쌓인다면 밸류에이션 상승도 기대해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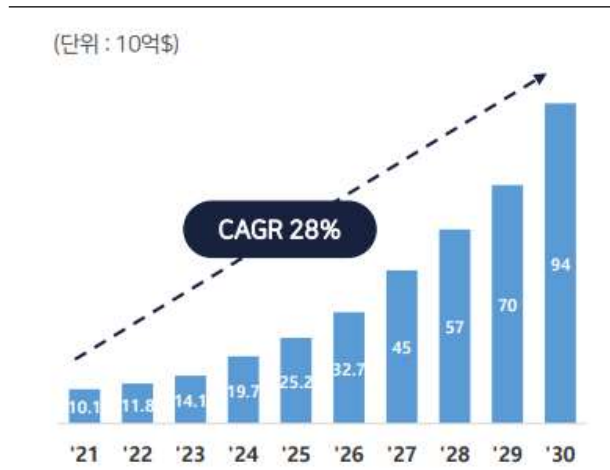
올해 매출액은 510억원(+8.9%), 영업이익은 12억원(-71.8%)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이 나오는 가운데, 비밀번호, 생체인식 등의 통합보안 솔루션 수요가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ID 수요가 국내외에서 증가한데 따른 영향이다. 영업이익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지만, 회계 인식 변경과 직원 증가에 따른 영향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성상 인원 증가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나 블록체인 보안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에서의 FIDO 인증 MAU가 9월 기준 370만까지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 ID 컨설팅을 수주하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



자료: Research and Markets

[그림2] 글로벌 블록체인 ID 시장규모



자료: ZION Blockchain Identity Management Research(2019)

고지 사항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투자자 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 당사는 공표일 현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매수, 매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 매수에 따른 손실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